

전남 차세대 친환경 선박산업 중심지로

'그린 뉴딜' 연계 클러스터 조성·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전남도가 한국판 뉴딜 사업 중 '그린 뉴딜'과 연계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22일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정부 친환경 선박 정책이 적극 대응하고,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선과 내항 여객선이 운행된 전남도는 친환경 선박 신기술 실증단지 구축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친환경 연안선박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고급기술인력 육성 등 차별화된 연구개발

사업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추세에 따라 5년간 총 사업비 451억원이 투입될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급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착수에 들어갔다. 특히 사업을 주관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오는 2024년까지 무탄소 한국형 연안 운송체 기술 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제로화를 구현하고 전원공급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후속 사업으로 해수부와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 국내 선박 규모와 항로에 특화된 선박용 친환경 연료 적용을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추진 현황

- 목표 남향 세계 첫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
- 국내 연안선박 기간산업 집적화
- 서남해안 권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국가연구소대학원 유치
- 연료기술 실증 지원·일자리 4만9천개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우선 목포시 남향을 세계 최초 해상 테스트베드로 구축해 국내 연안선박 기간산업을 집적화하고, 차세대 선박시장을 선점해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로 키워가기로 했다.

또 LNG 혼소 등 다양한 선박용 친환경 연료 기술의 해상실증과 운행실적 확보를

일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간 670억원 규모의 외화 유출 방지 및 지역산업 집적화를 통한 약 4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체연료 기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연안선박이 밀집한 서남해안 권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국가연구소대학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국가사업 유지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전남형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산업을 적극 육성해 관련기업 투자유치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19 해수욕장 이용 '분산 효과'

전남 해수욕장 이용객 붐볐다

사전예약 12곳 7만 2788명...전년비 두 배 전국 대형해수욕장 이용객 절반으로 줄어

코로나 19 사태로 전국 최초로 전남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의 평균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한 방문객 비중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250개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 수준인 574만명(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해수욕장 방문은 감소한 반면,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늘어 이용객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의 설명이다. 대형해수욕장(21개소)은 지난해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약 2만 2000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1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전남에서 시행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12개소는 개장 이후 7만 2788명에서 7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223%가 상승했다. 이용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9777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3% 수준이었는데, 해수부는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취한 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바다여행 누리집을 이용해 예약한 6129명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남권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거주자가 그 뒤를 이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북과 충청권의 예약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또 개장 이후 7월 20일까지 한적한 해수욕장(23개소)을 이용한 인원은 6만 9907명이었고, 특히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이용객의 경우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112명에서 322명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향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내 거리두기 홍보를 위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의 정확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해남 송호해수욕장.

전남 숨은 인재 찾아라

도, 9월 100명 발굴대회

미래리더·예체능리더 모집

전남도가 전남의 숨은 인재 100명을 찾아 나선다. 인재에 선정되면 재능개발비를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2일 "제1회 숨은 인재 발굴대회"에 참여할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숨은 인재 발굴대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2일간 펼쳐지며, 미래리더와 예체능리더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사전 선정자 모집에 들어간다.

미래리더는 이공계를 비롯 농수산, 경제·경영 등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응시 가능하고, 예체능리더는 음악과 미술, 무용, 체육 분야를 포함한다.

중·고·대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14~24세)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분야 수성경력이 없더라도 그동안 활동실적과 추천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회를 통해 선발될 숨은 인재는 총 100명으로, 공정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서류심사(1차)와 실기 및 심층면접(2차) 등을 거쳐게 된다.

선발된 인재들은 '전남스타 200인'으로 선정되며, 대학생 연간 600만원, 고교생 연간 500만원, 중학생 연간 300만원 등의 재능개발비를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제1회 숨은인재 발굴대회'를 명실상부한 인재올림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용성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한지형(우)오도모스에이투지 대표, 지영호(우)알파도 대표, 박민우(우)클라우드웍스 대표, 안성민(우)오투오 대표, 김영국(우)알바이오텍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공지능 기업 광주형 가속도...5개 기업 협약

광주시, 21곳 유치

인공지능 업체들의 광주행에 속도가 붙었다.

광주시는 22일 오토모스에이투지, 오투오, 알바이오텍, 알파도, 클라우드웍스 등 5개사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오토모스에이투지는 특수 목적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해

광주 법인과 지역 사무소를 설립한다.

오투오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인터페이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려고 광주 법인을 설립하며 알바이오텍은 맞춤형 재활을 위한 AI 기반 차세대 운동 기술 개발을 위해 법인과 지역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알파도는 분사 이전, 클라우드웍스는 법인·지역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줄 절호의 기회 요인"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광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16개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해 8곳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실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17~21번째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화장품·의료·미용 결합 '코스메디케어' 산업 육성

광주시가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를 결합한 '코스메디케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메디케어 산업은 피부 의학을 결합

한 고기능성 화장품과 미용기기 제조, 뷰티 서비스를 융복합한 것이다.

광주시는 2023년까지 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 민간 부담 20억원 등 180억원을 투입해 화장품 기업 수요 발굴, 기술개발, 사업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

다. 사업 주관은 전남대학교병원이 맡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광주화장품 산업진흥회가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융합 기업을 육성해 매출 연 1천억원, 고용 800명, 기업 300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수산 고수온 피해 막기 총력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군 합동 일제점검을 벌인다. 22일 국립 수산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한 대마난류가 여름까지 영향을 미쳐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수산분야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해수면 입식량 및 양식재고량 조사와 함께 국립 수산과학원, 시·군, 어업인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 개최, 고수온 대응계획 수립·시행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양식 현장에 대해서는 산소발생기,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12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추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액화산소 94t도 확보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자체 고수온 대응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및 관리 실태 ▲수온별 사료투입량 조절 여부 ▲가두리 어망청소 상태 등 양식장 관리 실태를 점검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